



대한해운

영업이익 전년비 83%증가

대한해운(회장 이진방)은 2008년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83% 증가한 1,610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비 72% 증가한 8,270억원, 경상이익은 전기대비 102% 증가한 1227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사업계획 전망도 매출 3조원, 영업이익 6천 5백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시한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대한해운은 이에 대해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등과의 안정적인 전용선대 영업활동과 강세를 보인 건화물 시황에 적극적으로 용대선 영업활동을 실시하여 뚜렷한 실적개선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영업이익율에서는 약 20%를 기록했으며, 경상이익은 우너화약세로 인한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평가손실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전기대비 두배가 넘는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해운은 올해 예상매출을 약 2조 5천억원에서 약 3조원으로 수정했으며, 영업이익 추정치 또한 기존의 5,19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상반기에 2008년도 가용선복의 약 85%이상이 계약완료 됨으로써 해운시황을 나타내는 BDI 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성을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2009년에도 대한해운은 총 용선선복 중 50% 이상 대선계약을 완료하여 상당한 실적을 이미 확보했다”며 “현재 시황을 고려할 때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광SHIP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 신조발주

세광SHIP(대표 박세룡)이 최근 5만DW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을 발주했다.

최신 발표된 신조선 마켓데이터 따르면 세광SHIP은 STX조선에 5만200DW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을 2010년 인도받는 조건으로 신조 발주했다.

이에 앞서 STX조선은 지난 7월1일 국내 선사와 프로덕트 탱커 2척을 1,102억원에 2010년 12월 말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신조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주로 세광SHIP은 신조선 발주잔량을 총 14척을 늘리게 됐다. 현재 세광SHIP은 발주잔량을 보면 자회사인 세광중공업에서 8,800DWT급 석유제품운반선 4척, 1만9,900DWT급 석유제품운반선 6척 등 총 10척의 석유제품운반선을 건조중이며 SEKO중공업에도 1만 8000DWT급 다목적운반선 2척 발주해 건조중인데 이들 선박은 모두 2010년 까지 인도받을 예정이다.

세광SHIP이 현재 운행중인 사선대는 유조선 5척, 케미컬운반선 1척, 석유화학제품선 13척 등 총 18척으로 3000~2만DWT급 선박들이다.

이번에 세광SHIP이 발주한 5만DW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은 현재 보유중인 사선대와 신조중인 선박을 통틀어 가장 큰 선박이다.

C&그룹

철강사업 부문 매각

C&그룹(회장 임병석)은 C&중공업의 철강사업부문을 철강전문업체인 (주)현진스틸에 매각기로 하고 MOU를 체결하였다고 9일 밝혔다. C&그룹이 C&중공업의 철강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등 사업구



조 개선작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매각금액은 120억원 가량으로 잠정 합의하였으며, 실사를 통하여 최종 확정기로 하였다. 정식 계약체결은 이번 달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매각 대금은 신규사업부문인 조선사업부문에 투자, 신조 건조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선사업에 진출한 C&중공업은 현재 벌크선 등 총 62척의 선박을 수주하였으며, 그 수주금액은 약 33억불 규모에 달한다.

C&중공업 철강사업부문은 연간 200억원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포항에 공장을 두고, 건설 및 자동차 등에 쓰이는 구조용 탄소강관, 아연도강관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C&중공업의 철강사업부분 매각은 그동안 C&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구조 조정작업의 첫 가시적인 성과로 향후 현재 추진 중인 여타 사업구조 개선작업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그룹은 조선사업부문을 중심으로 그룹의 사업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 해운, 건설 등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STX팬오션

몽골에 PC 100대기증



STX팬오션과 STX그룹 IT계열사인 포스텍은 9일 몽골 투브아이막에서 열린 몽골 최대 전통축제 '나담축제'에서 김효중 포스텍 사장,보양달라이 에르텐산트 군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C 기증식을 가지고 PC 및 LCD 모니터 100대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된 PC 중 50대는 몽골 국립법제센터, 나머지 50대는 투브아이막 에르텐산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보내져 학생들의 IT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에르텐산트지역의 학생 수는 약 1,200여명으로 현재 이 지역에는 컴퓨터를 갖춘 학교가 없기 때문에, STX의 이번 PC기증은 몽골 학생들의 IT 교육 인프라 구축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양달라이군수는 "몽골학생들의 IT교육에 도움을 준 STX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최근 몽골에서 불고있는 한류바람처럼 IT 한류바람'도 확대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 만들기'를 모토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STX그룹은 최근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사회공헌활동 범위를 해외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장금상선

VLOC 철광석 수송에 투입

장금상선(사장 정태순)은 초대형 유조선(VLCC)을 개조한 초대형 광탄선(VLOC)이 지난 5월 31일 브라질 투바라우항에서 철광석 25만톤을 싣고 출항해 중국 일조항까지 수송한 첫 항차를 7월 20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장금상선의 첫 번째 VLCC 개조선박인 시노캐리어호는 26만DWT, 총길이 324m, 폭 56m의 초대

형 광탄선으로, 세계 최초로 Full Deadweight Cargo(만선)을 수송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25만톤의 철광석을 선적항에서 24시간만에 선적을 마침으로써 기존의 광탄선에 비해 선박 운항 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노캐리어호는 중국의 조선소에서 2007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약 7개월 기간의 개조 과정을 마치고 지난 4월 14일 첫 출항했으며, 중국 유수의 철강회사와의 장기운송계약에 따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철광석을 운송할 예정이다.

장금상선은 “이번 선적을 담당한 브라질의 Vale에서는 시노캐리어호를 파이애플에 비유하며, 개조된 선박으로 처음에 많은 우려를 가졌으나 실제 작업 후 어느 광탄선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시노캐리어호는 중앙선박기술(주)에서 개조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선급(KR)에서 선박개조 감리를 담당했으며, 중국 산해관 조선소에서 개조가 이루어 졌다.

한편 장금상선은 VLCC 개조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현재 시노캐리어호를 포함해 총 5척의 선박 개조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5척 중 2척의 VLOC선박이 이미 개조가 완료돼 운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3척의 개조선이 추가로 운항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천경해운

부산-군산-연운항 항로개설

천경해운(대표 김지수)이 오는 9월 부산-군산-연운항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한다.

천경해운은 지난 7월28일 전라북도, 군산시, 현대택배 등과 부산-군산-연운항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오는 9월 동항

로에 32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날 MOU 체결식에는 천경해운 김지수 사장을 비롯해 문동신 군산시장, 이경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래범 군산시의회 의장, 류영하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박양일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현대택배(주)의 김병훈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천경해운은 이번 MOU체결에 따라 오는 9월초 32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을 투입해 부산-군산-연운항을 연결하는 주1항차 서비스를 개시하는데 군산에는 아웃바운드 1회, 인바운드 1회 등 주 2항차 기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천경해운은 기존 주1항차로 서비스하고 있는 인천-군산-부산-일본항로에 이어 군산에서만 주 3회 기항하게 됐다.

지난 5월부터 5개월여간 부산-연운항-청도간 컨테이너항로를 운항하다가 중단한 바 있는 천경해운은 사실상 이번에 부산-연운항간 항로를 재개하며 군산항을 기항지로 추가한 것이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는 현대택배가 연운항에서 반가공 형태로 수입되는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의 물량과 향후 GM대우자동차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CKD 물량이 연간 3만~5만TEU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는 또 천경해운이 군산-연운항간 주1항차 항로를 개설함에 따라 북미, 유럽, 동남아 등과 20여개 항로, 월 200여편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연운항을 환적항으로 이용한 월드와이드 서비스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팬스타라인닷컴

12피트 컨테이너수송 개시

부산-오사카를 운항하고 있는 팬스타페리가 일본 JR과 12피트 컨테이너의 일관운송서비스를 8월1일부터 시작했다.

팬스타라인닷컴(회장 김현겸)은 일본 현지법인인 산스타라인이 지난 6월 27일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철도이용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일본 JR 화물(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측과 JR의 12 컨테이너를 공급받아 동 컨테이너를 부산-오사카 페리 항로에 투입하고 철도운송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 팬스타는 페리와 일본 내 철송과 육송을 연계한 부산과 동경, 나고야간 급속 운송 서비스인 PUE(Panstar Ultra Express)서비스에 20 컨테이너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약의 체결로 12 컨테이너도 투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소량화물 운송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팬스타라인닷컴에 따르면 이러한 JR과의 업무협약은 이미 작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PUE 서비스의 화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본 현지법인인 산스타라인의 철도이용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면서 급진전을 보이게 되었으며, JR측에서는 12 컨테이너를 제공함으로써 PUE서비스에서 소량의 경우 트럭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철송으로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 항로의 페리를 이용한 일본 내 철송 연계 서비스의 경우 여러 업체가 각각의 사업주체로 구성된 반면, PUE는 한국 내 영업을 담당하는 팬스타와 페리운항 선사인 팬스타라인닷컴, 통관면허와 철도운송면허를 보유한 산스타라인이 일본 내 영업, 통관, 운송을 담당하고 있어 철도 Carrier로 연계된 JR을 제외한 하나의 회사가 한·일의 각 역할을 수행하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12 컨테이너의 PUE서비스 투입은 내달 1일

부터 공식적으로 개시되고 올해 안에 나고야, 동경 이외의 일본 관동 지역의 주요도시 및 북해도 지역까지의 PUE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라리스쉬핑

초대형광탄선(VLOC) 취항

플라리스쉬핑(대표 김완중)이 7월31일 포스코가 브라질에서 들여오는 철광석을 신기 위해 대형유조선에 개조하여 만든 초대형광탄선(VLOC)을 취항시켰다.

플라리스쉬핑이 브라질-한국항로에 투입한 27만DWT급 VLOC 'STELLAR COSMO'호는 기존의 철광석운반선 보다도 8만톤 정도를 더 실을 수 있어 수송 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그에 따라 포스코의 제철원료 수송원가를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플라리스쉬핑은 COSMO호 외에도 3척의 대형탱커(VLCC)를 현재 중국에서 개조작업을 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포항제철의 철강석 수송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12월에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취득한 플라리스쉬핑이 쟁쟁한 선사들을 따돌리고 포스코의 브라질 철광석 수입에 대한 장기수송계약(CVC COA)을 따낸 것은 지난 2007년 3월의 일이다.

2010년까지 모두 처분하기로 되어 있는 싱글헬 VLCC를 VLOC로 개조하여 장거리 수송에 투입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송은 물론, 고유가 시대에 최적선형임을 포스코측에 설득하여 계약을 따내게 된 것이다.

플라리스쉬핑은 VLCC를 VLOC로 개조하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으며 국내 최초로 VLOC 개조 설계를 완성하고 중국의 한 조선소에 의뢰하여

VLCC 4척을 초대형광탄선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리스쉬핑은 포스코와 4척의 VLOC 장기수송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용선사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는 2008년도 총 매출액 목표를 전년 대비 3배 이상이 늘어난 50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포스코와 장기운송계약이 돼 있는 VLOC 4척이 모두 취항하게 되는 오는 2009년에는 연간 매출액이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

올 상반기 영업이익 2072억원

한진해운(대표이사 박정원)이 올해 상반기 매출액 4조2,413억원, 영업이익 2,072억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했는데 벌크선 부문의 매출이 97.3%나 증가한 1조 228억원을 달성하면서 매출 증대를 이끌었는데 전체 매출액에서 벌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에서 24%로 크게 상승했다. 컨테이너 부문 매출 역시 20.3% 증가한 3조2,185억원을 달성해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

컨테이너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상반기 30억원 적자에서 523억원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미 경기둔화와 유럽항 화물 증가세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주발 물동량 증가, 유가연동제(Floating Bunker Charge) 적용에 따른 원가 보전 등으로 수익성이 호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벌크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부터 지속된 벌크업황 호조와 효율적인 선대운용에 힘입어 전년 상반기 영업이익 341억원 대비 354.3% 증가한 1,549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제유가 상승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부문의 흑자 전환과 벌크 부문의 대폭 성장에 힘입어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총 1,761억원이 증가한 2,072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외 투자법인의 지분법 평가로 인한 영업외수입은 증가했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부채 환산손실 증가 등 영업외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순이익은 전년 대비 166.3% 증가한 466억원을 기록했다.

한진해운은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라 물동량 증가는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 지속적인 노선 합리화 및 사업부문별 비용관리 등을 통해 2008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고객 편의성을 더욱 강화한 E-Service를 선보인다. 한층 더 새로워진 E-Service는 한진해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다양한 기능과 편리한 메뉴 구성을 통해 고객의 보다 쉽고 효율적인 업무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Visibility Summary(화물추적 종합리포트), Event Notification(배송현황 통보서비스), Vessel Delay Notification(선박스케줄 변경 통보서비스), Longstay Notification(도착지 인수 지연 통보서비스)의 4가지 서비스를 통해 운행중인 모든 화물의 종합 리포트, 다양한 조건에 따른 세부 리포트 및 도착지에서 인도되지 않은 화물 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화물 위치 추적의 시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고객의 재고관리와 물류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화이브오션

조병호 사장, 경영인대상 수상

화이브 오션 조병호 사장이 7월 17일 한국일보-주간한국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석세스TV,



KIME후원으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글로벌 경영인대상 시상식'에서 운송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심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DB와 한국일보, 한국경영평가원의 각 부문별 관련분야 DB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매출 및 순이익자료, 기업의 국제경쟁력, 해외사업의 전반적 성과 CEO경영활동의 국제화 수준 및 현지화 수준, 기업과 최고경영자의 최근 5년간 수상경력, 사회공헌활동 등을 근거로 하였다.

화이브오션은 '오대양을 잇는 선두 해운선사'를 목표로 출발,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룸으로써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있는 기업이다.

2006년 2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하여 CEO의 오랜 해운경력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WORLD-WIDE BULK운송서비스를 시작한 화이브오션은 자사만의 독특한 운송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용하면서 해외거래처의 운송물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왔다.

창립연도에 530억원이라는 놀라운 영업매출을 달성, 2007년에는 그 두배인 1,150억원으로 영업매출을 끌어올리는 등 해마다 경이로운 기록을 탄생시키는 고속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007년에는 세계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해상운송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를 미리 예견하여 PANAMAX급 벌크선(M/V SOYANG)을 도입하여 선주회사로서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화이브오션은 창립 10년이 되는 2015년 이내 세계 10대 벌크선사 대열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신임사장 취임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사장은 7월 17일 중구 중앙동 BPA 사옥에서 BPA 항만위원과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집무에 나섰다.

신임 노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1876년 개항한 부산항은 그동안 선진문물의 창구와 산업화시대 수출입 역군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며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창조적 사고로 부산항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노 사장은 특히 "BPA의 사장으로서 부산항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취임 의견을 밝혔다.

BPA는 신임 노 사장이 향후 3년간 북항 재개발 사업의 연내 착공과 신항의 차질없는 건설, 배후물류단지 조성 및 부산항 물동량 확보 등 산적인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노 사장은 BPA항만위원회가 지난 5월말에 실시한 BPA 3대 사장 공모에 응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16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임명장을 받았다.

신임 노 사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남고와 부산대를 졸업했으며 제15대 국회의원과 부산시 정무부시장,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거쳐 BPA

초대 항만위원장과 국제신문사장, 북항아이브리지(주)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해운물류학’ 석사학위 과정 전공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재단

국제물류대학에 장학금 전달



양현재단(이사장 최은영)이 7월 21일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에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양현재단에 따르면 평소 사회기여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양현재단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인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에 네덜란드의 선진해운물류지식을 국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을 교육시켜 해운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최 이사장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의 교육 과정과 유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양현재단의 주된 사업인 해운물류부문 연구, 장학, 의료지원 및 사회기여사업 중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해운물류 관련 장학사업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을 선정할 데서 그 의미가 큰 만큼 앞으로 우수한 해운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에 기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은 양현재단의 기부금을

한국선급

등록톤수 1억톤 달성목표

한국선급(KR, 회장 오공균)이 세계 5대 선급으로의 도약의지를 밝혔다. 오 회장은 7월17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등록톤수를 2012년 5천만톤, 2020년까지 1억톤(매출액 2천억원)을 달성해 세계 5대 선급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톤수 기준으로 세계 5대 선급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일본 NK(1억5220만톤), 미국 ABS(1억296만톤), 영국 LR (1억3,540만톤), 노르웨이 DnV(1억2,100만톤), 독일 GL(7,190만톤) 순이다. KR이 1억톤까지 등록톤수를 끌어올릴 경우 독일을 제치고 5대 선급에 낄 가능성이 높다.

오 회장은 “한국선급은 지난 2월 3천만을 넘어섰으며 6월말 현재 3,250만톤을 달성, 올해 목표인 3,500만톤 달성도 낙관적”이라며 “외국선사를 방문하고 국내외선사 및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조선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건조선박의 등록유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KR은 국내 조선소 건조물량의 7~8%를 입급하고 있다.

KR은 지난 1960년 6월 설립 이후 20년만인 1980년 등록톤수 500만톤을 달성한 데 이어 87년 1,000만톤, 2001년 2,000만톤을 넘어섰고, 올해 3,000만톤을 돌파했다. 3,000만톤 돌파는 과거 1,000만톤에서 2,000만톤으로 올라갈 때보다 기간이 절반 가량 짧을 뿐 아니라 당초 목표보다 3년



빠르다.

오 회장은“선급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기준은 검사망과 검사원인데, 선진국은 검사망이 150~최대 850개에 이르지만 한국선급은 국내외 합쳐 44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회장은“검사망 확대를 위해 인력을 지난해와 올해 총 150명을 새로 모집했으며 지부도 매년 4~5개씩 늘려가고 있다”며“올해는 그리스와 중국에 해외 본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17일 세계 최고 해사기술단체인 국제선급연합회(IACS) 의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소, 신조선 건조기준 제정에 대한 기술적 자문 역할 등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한국선급과 우리나라 해운 조선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 “2011년 목표로 부산으로 본부를 이전할 계획”이라며 “고객사의 80%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의 이전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다만 우리가 1억톤 등록톤수를 달성하고 글로벌 선급으로 도약할 경우 해외 고객사를 겨냥해 서울에 마케팅기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항 개장 10년 크게 성장

국제물류중심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이사장 최장현)는 7월 17일 개장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0년간 광양항은 총 16개 선석을 가진 연간 548만개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국제항만으로 성장하였고, 배후부지에는 194만㎡ 규모의 국제물류단지가 조성되어 삼성 테스코 등

국내외 굴지의 25개 기업체를 유치, 100% 투자유치 성공률을 보이며 국제 물류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98년 개장 이래 20%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구현하며 지난해에는 172만개를 처리, 국내 2위 항만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개항 당시 13개에 불과하던 항차수도 크게 증가하여 현재 26개의 글로벌 선사들이 미주, 유럽, 아시아등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며 매주 72회의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양항의 성장을 촉진할 물류 인프라 시설도 획기적으로 확충되었다.

44,000㎡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금물류센터'가 올해 초 준공되어 복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물류산업 최일선의 역군인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화물차 복합휴게소'가 이곳 광양항에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광양항의 랜드마크이자 종합 운영의 메카인 '월드마린센터'가 개장, 운영되고 있다.

월드마린센터에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국제물류대학 광양분교 (STC-Korea)가 국내 최초의 외국기관으로 개설되어 우리나라 해사인력의 양성은 물론이고 아태지역 해사교육의 요람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광양항은 금년 개장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다져온 발전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취의 역사를 써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제공, 부두효율성 제고, 차질 없는 항만시설 확충 등 고효율·저비용 항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 매진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의 활성화 등 세계 평화번영의 분위기에 또한 광양항 활성화에 호의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020년 까지 34개 컨테이너부두 개발이 완료되고, 90km²에 이르는 광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여수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광양항은 제철, 석유화학, 컨테이너, 해양관광을 아우르며 연간 4억톤 이상을 처리하는 미래형 선진 국제항만으로 발전하여 국제물류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한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장 10주년 기념행사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9월중 개최할 계획이며, 기념행사, 학술행사, 체험행사 등 고객과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해기사협회

창립 54주년 기념식 거행



한국해기사협회(회장 민흥기)는 지난 8월1일 부산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협회임원 및 대의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해기사협회는 지난 1954년 8월4일 해기사의 기술향상, 상호친목, 해사사상 보급을 위해 창립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퇴임임원 18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협회 직원 김동규 부장과 천명아 사원은 각각 15년 장기근속, 우수사원으로 선정됐다.

민흥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래가 없는 해운 호황 속에서 임직원과 회원모두가 상호협력해 나가면 협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기사협회는 앞으로도 매년 창립기념식을 개최, 협회의 창립정신을 되새기고 역사를 재조명해 협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한국해양대학교

독도울릉도 탐방행사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7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독도·울릉도 탐방행사를 가졌다.

이는 한국해양대학교가 매년 하는 행사로 특히 일본의 독도만행과 때를 같이해 2박 3일간 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를 이용해 전국 진학담당교사 130명과 교육부, 국토해양부 등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50명이 동해안 독도일출과 울릉도 육상탐방을 했다.



독도·울릉도 탐방단은 7월23일 오후 1시 해양대에 집결해 한바다호에 승선, 오후 3시 독도로 출항해 24일 새벽 한바다호 선상에서 독도 일출을 보며 독도주변을 선회한 후 울릉도로 출발했다.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한 탐방단은 오후 1시부터 울릉도 육상탐방을 시작 사동리, 통구미, 낭양, 수층, 산막, 학포, 태하리, 현포, 천부, 나리분지를 거치는 탐방을 마치고 한바다호에 승선해 7월25일 부산으로 돌아왔다.

한편 해양대는 일정 중 고교 진학담당교사들에게 해양대 홍보 및 2009년도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독도·울릉도 탐방과정을 통해 국토사랑 및 해양문화 창달에 기여하며,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선박운항 체험을 통한 해양의 중요성을 높인다는 방침으로 행사를 주최했다.

한국해운조합

공제 가입선박 안전점검 실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8월 한달간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선박의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시중보험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동 안전점검을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선박 213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999년부터 실시된 동 안전점검은 2001년 화물선 60척, 2002년 선령 20년 이상 선박 76척, 2003년 무선급 유조선 154척, 2004년 선령 20년 이상 전 선종 및 선령 20년 미만 무선급 비유조선 205척을 대상으로 진행되바 있으며, 2005년부터는 가입선박 진수일자 기준 3년 1회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2005년 236척, 2006년 242척, 2007년 227척에 대해 안전점검이 실시되었다.

점검에 따른 비용은 조합원의 부담 경감과 공제 가입 선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에서 일괄 부담하고 있는 반면 P&I Club 및 시중보험사의 경우 보험 가입전 계약자 부담으로 선박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한달간 진행될 이번 안전점검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감정사업 등록업체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케이엘넷

코레일 물류정보시스템 개선 착수

케이엘넷(사장 박정천)은 7월18일 오전 10시 코레일과 최적화된 화물수송을 위한 물류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레일의 철도물류정보시스템을 차세대 IT기술과 접목시켜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한 화물예약관리 기능을 추가해 화주와 운송사 등 물류관련 고객서비스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웹사이트의 철도물류정보시스템을 오픈 소스기반의 J2EE 프레임워크 적용 ▷철도물류정보시스템에 화물예약관리 기능 추가 ▷철도물류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 보완 ▷철도운영정보시스템(KROIS)과의 연계 기능 보완 ▷외부기관과의 용이한 연계 기능 추가 등이다.

박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레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물수송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철도물류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18개월간이다.